

시론



오수열

조선대학교 명예교수·광주유학대학 학장

8·15광복절을 앞두고 열린 파리올림픽에서의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善戰)과 놀라운 성과는 폭염과 뛰는 물(物)에 지친 우리 국민들을 잠시나마 위로했고 행복하게 했다.

이처럼 국민들을 격려하고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전문스포츠를 진흥시키고 올림픽과 월드컵을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이태우로기 대립이 치열했던 냉전 시기는 물론이고, 탈냉전의 다원화를 지향하는 오늘날에도 올림픽에서의 성적이 곧 국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인식되면서 메달 색깔 하나하나에 국가적 희비가 엇갈리기도 한다.

이처럼 올림픽에서의 낭보 속에서 국민들이 행복감에 젖어 있는 동안에도 국내의 정치상황은 "과연 정치관계 필요한 것인가"하는 회의감을 증폭시킬 만큼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무엇보다도 민생(民生)은 뒷전으로 한 채, '채상병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 등 야당에 의해 제기된 여러 특검법을 놓고 전개된 여야 간의 극한대립은 국민의 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극도로 높이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이 무렵에 특히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혼란스럽게 한 것은 1945년 해방이후 처음

국민통합과 대통령의 역할

으로 광복절 기념식이 두 곳에서 따로따로 개최된 일이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의 여러 국가기념일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경일로 꼽히는 광복절이 정부 주최행사와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 주최의 행사로 나뉘어 개최되면서 그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는 불상 사나운 일이 벌어졌으니 참으로 민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에 따른 정부와 광복회 간의 입장 차이와 대립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정부 소속 기관장의 임명권이야 당연히 대통령에게 있으니, 대통령의 임명행위 자체를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여 대통령이 누구라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합당한 자격기준이 있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하는 것이다. 특히 '독립기념관장'이나 '국사편찬위원장'처럼 우리나라와 민족의 정체성 및 역사관과 관계있는 기관장의 경우,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되는 것이 순리(順理)가 아닐까 싶다.

여러 저서나 논문 그리고 강연을 통해 항일투쟁을 폄하하거나 임시정부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해 국민들에게서 부정적 인식이 남아있는 사람을 임명하여 분란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한다.

물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남북관계를 포함한 주변 정세가 엄혹한 현실 속에서 한·일 양국이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에만 매달리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많은 국민들이 수긍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국민 대부분의 정

서이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동원 된 근로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보상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것에 수긍하는 국민들이 그리 많지는 않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의 대형제가 '국민통합'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무한 국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민적 단합과 통합이 필수적이며, 이것이 이루어질 때만이 국민적 에너지가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23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52%의 국민들이 정치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연애나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고 하며, 술자리를 함께 할 수 없다고 응답한 국민들도 33%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해소되지 않는다면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그동안의 지역 간 대립과 계층 간 갈등을 넘어 이념적 대립과 갈등마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국가발전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임과 동시에 국가의 원수(元首)이다. 국가의 원수는 특정 정파나 지역 그리고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닌 국민통합의 상징적 존재여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의 대립과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어서는 안 되며 국민을 대동단결시켜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선구자가 돼야 할 것이다.

K팝, K방산 등을 통해 우리 국가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국민통합을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여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국민통합에 앞장서야만 할 것이다.

社說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은 광역·기초지자체 상생 사례

여수지역 속원 중 하나가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이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022년 10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추진을 약속해 가시화됐으며 전남도와 여수시의 사업비 부담으로 분께도에 올랐다. 광역·기초지자체 간 상생 발전 모범 사례인 것이다.

금오도-대두라도-월호도를 잇는 3.41km 구간인 해상교량은 교량 1.53km(2개소), 접속도로 1.88km로 진행된다. 사업비는 2천367억원(공사비 2천97억원, 설계비 등 부대경비 188억원, 보상비 87억원) 규모다. 전남도가 한해 전체 지방도에 투입하는 총 예산은 2천억원 안팎이라는 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 속에 지자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산간과 특히 섬이 많은 전남은 도로와 다리 등 SOC 분야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깊다.

일선 사·군의 살림 또한 갈수록 쪼그라드는 위기 국면이다. 지방세에 세외수입을 더한 자체 수입의 정도를 나타내는 자립도 등은 갈수록 악화되지만 주민의 요구도 그렇고 삶의 질을 위해

팔을 걷어야만 한다. 주지하듯 전남도가 독자적으로 지방도 해상교량 사업을 시행하기는 불가능하다. 결국 시·군이 마련 수건이라도 짜는 심정으로 힘을 보태는 현실이다. 실제로 전남도는 금오도 외에 신안 장산도-자라도, 완도 소안도-구도, 진도 의시면-점도 등의 교량도 사업비 부담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금오도는 다도해 국립공원 '비렁길'로 유명한 수많은 방문객이 찾는 명소다. 해상교량과 현재 공사 중인 국도 7호선 화태-백야 연도교가 연결되면 글로벌 여수 대표 섬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또 고흥 영남에서 여수 돌산까지 10개 섬을 잇는 30.1km 연장의 국도 7호선 백리섬섬길을 금오도까지 연장하면 전남 동부권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속도가 붙는다.

전남도는 이번 주중 조달청에 금오도 해상교량 터기 계약을 의뢰할 계획이며, 시공업체 선정을 거쳐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와 여수시가 손잡아 탄력을 받은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이 거듭 주목받고 있다.

KIA 우승·김도영 스타 탄생 예고, 지역민도 신바람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정규시즌 우승을 위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6할의 승률로 선두를 달리는 KIA는 이번 주 광주 홈 6연전을 통해 '매직넘버'를 한 자릿수로 줄여 고삐를 죄겠다는 각오다. 시즌 막바지, 더욱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다. 막강한 타력을 탄탄한 불펜, 최고의 전력으로 목표에 근접했다.

2017년 이후 7년 만이자 통산 12번째 KIA 우승에 대한 기대 만큼이나 또 다른 흥밋거리도 있다. 슈퍼스타 김도영의 맹활약이 그것으로, 먼저 '40홈런-40도루' 대기록의 경우 현재 페이스라면 무난할 전망이다. KIA의 강점은 김도영·나성범·최형우·김선빈·박찬호·소크라테스·브리토·최원준 등 신구 조화를 이룬 타선으로 상대를 압도한다. 그 중심에 김도영이 있으며, 야구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홈런 35개, 도루 36개인 김도영이 40-40이라는 전대미문의 업적을 이룬다면 국내 선수론 KBO 리그 최조다. 외국인으로 에릭 테임즈(당시 NC

다이노스)가 2015년 개척한 바 있다. 역대 최연소, 최소 경기 '30홈런-30도루'를 넘어서 김도영이 35경기 당 1개의 홈런을 때려내고 있는 만큼 남은 18경기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도영은 3할 중반 타율을 유지하고 있어 '트리플 스리'(3할-30홈런-30도루)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997년 이종범(해태)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6명만 보유하고 있는 타이틀이다. 2000년 박재홍(현대 유니콘스)과 테임즈만 밟았던 '3할-30홈런-30도루-100타점-100득점'에 이름을 올릴 날도 멀지 않았다.

전통의 명가 KIA 타이거즈의 부활과 프로 3년 차 김도영의 스타 탄생을 예약하며 2024 프로야구가 최고의 흥행을 구가하고 있다. 출범 42년 만에 처음으로 900만 관중을 돌파, 꿈의 1천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둔 것이다. 올 여름 30대 이상 유례없는 폭염에도 야구장엔 사람이 꾸준히 몰렸다. KBO 새 역사를 쓰는 김도영이다. 호남을 넘어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고



이동건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장

국회는 지난해 정부가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있어 학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관심을 모아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등 아동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 보도에서 불필요한 학대 영상,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나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됐다.

사실 2022년부터 한국기자협회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만들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민관이 적극적인 역할수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또한 2023년부터 한국기자협회는 광고 및 기사 토론회를 통해 인식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일선 취재 현장에서는 아직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이 마련됐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알리고 취재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언코자 한다. 우선,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내용을 보면 전문, 아동의 권익과 인권, 2차 피해예방, 사실기반보도, 아동학대 예방 권고문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에는, '언론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독립적 인격체로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며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선다'라는 내용을 포함해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는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는데 우선 아동의 권익과 인권 관련 ①부모가 아동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자 극도의 아동학대이다. 이를 '일가족 동반 자살', '일가족 극단 선택' 등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②민법상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은 폐지됐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훈육', '체벌' 등의 표현은 쓰지 않는다. ③피해아동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진술·상담 기록 등을 보도하기 전에 친권자 등 보호자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피해아동에 대한 인터뷰 방식·내용에 피해아동의 의견을 반영한다. 또한 '친권자 등 대리인의 의견이 피해아동의 의사와 다를 수

있으니, 이를 구별해 보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2차 피해 예방 관련해서는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 신고자, 학대행위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직장, 직업, 성별, 나이 등의 인적 사항을 되도록 보도 내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등 5가지 준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기반 보도 관련해서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학대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의 행위를 선별리 판단하거나 추측하지 말아야 하며,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등 5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예방 권고문을 게재하지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는 '민법 개정도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 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0(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하십시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사회 절대 발생하지 말아야 할 아동학대 사건이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바람직한 아동학대 사건보도를 통해 아동과 가족의 인권보장이 이뤄지고 아동학대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 궁극적으로 아동인권을 옹호하는 언론인과 언론이 되길 바란다.

독자투고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는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등의 현대 문명이 예상치 못한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신변 중상하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로 이어지고 있다. 일명 '스미싱(Smishing)' 사기가 대표적이다. 요즘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택배 배송 조회, 모바일 청첩장 등을 가장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해 규모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스미싱 피해는 즉각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스마트폰 속에 많은 정보를

스미싱, 예방만이 답이다

담고 다니는 요즘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개인정보 노출로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스미싱 범죄를 당하면 실제적으로 범인 검거를 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예방이 중요하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소액결제 차단, 지인의 문자라도 URL 첨부되어 있다면 문자 삭제 또는 지인에게 전화 연락, 스마트보안 설정 강화,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사이버 범죄 피해 시 경찰청 ECR

M(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한다.

스미싱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피해자들이 많다. 그만큼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혹시?" 하는 의심은 통해 스미싱을 예방하고 피해자가 발생 되지 않도록 주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김주현·여수경찰서 경무과 행정주사보)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3년7개월간 딥페이크 403명 검거·16명 구속

지난 3년간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해 불법한 가해자 수가 7천530명에 달했으나 구속률은 5%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집계된 사이버 성폭력(정보통신망 이용허용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 등) 발생 건수는 9천864건이다. 검거된 인원은 7천530명이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이 3천285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물 2천415명(32.1%), 불법성영상물 1천563명(20.8%), 허위영상물(딥페이크) 257명(3.4%) 순이다.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5.5%(412명)에 불과했다.

최근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가 난이 된 가운데 허위영상물 범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79명, 78명에서 10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허위영상물 범죄 297건이 발생해 146명이 검거됐다. 지난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로 검거된 257명 중 구속된 인원은 12명(4.7%)에 불과했다. 올해 허위영상물 범죄 구속률은 2.7%(검거 146명·구속 4명) 수준이다.

딥페이크 범죄 발생 건수·검거 현황



최근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가 난이 된 가운데 허위영상물 범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79명, 78명에서 10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허위영상물 범죄 297건이 발생해 146명이 검거됐다. 지난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로 검거된 257명 중 구속된 인원은 12명(4.7%)에 불과했다. 올해 허위영상물 범죄 구속률은 2.7%(검거 146명·구속 4명) 수준이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850-2022

Table with 4 columns: Department, Phone Number, and other contact information.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기사실용요령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